


보 도 자 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제공일	2019. 10. 28.(월)	
자료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윤희성 센터장(051-797-4637, heesung@kmi.re.kr)• 기획조정본부 홍보출판실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김혁주 실장(051-797-4381, hjkim@kmi.re.kr)- 이제영 선임행정원(051-797-4383, blueocean@kmi.re.kr)	
배포	• 기획조정본부 홍보출판실(051-797-4381, 4383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, www.kmi.re.kr		

KMI, 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‘해양금융 발전방안’ 모색
- 제1회 부산해양금융세미나 개최-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장영태)은 10월 25일(금) 부산국제금융센터(BIFC) 캠퍼스마루에서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‘제1회 부산해양금융세미나’를 개최했다.
- 이날 행사는 주최기관 기관장들을 비롯하여 김영춘 국회의원(전 해양수산부 장관),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련 유관기관장 및 임원, 산학연 관계자, 공무원,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재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- 이번 세미나는 김영춘 의원이 ‘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과 부산 해양금융의 미래’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, 이어 각 세션별로 런던대학교 카스비즈니스스쿨 니코스 노미코스 교수가 ‘최근의 해양금융 동향 - 녹색금융과 핀테크’를 주제로 발표하였고, KMI 윤희성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이 ‘부산에서 해양금융의 발전방안’을 주제로

발표하였으며,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조규열 정책지원본부장이 ‘한국의 해양금융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’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□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재민 교수를 좌장으로, 이유태 부경대학교 교수, 정옥균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장, 류재상 무역보험공사 컨테이너팀장, 안병철 BNK부산은행 해양금융부장이 참여하여 ‘해양금융의 발전과 과제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.

□ 세미나에 참석한 해양금융 전문가들은 “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양금융에 대한 산업적·학문적 가치가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※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희성 센터장 (051-797-4637, heesung@kmi.re.kr) 또는 홍보출판실 김혁주 실장(051-797-4381, hjkim@kmi.re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사진제공 : 한국해양대학교
사진파일 (JPG) 별도 첨부



한국해양대학교 이호진 총장 직무대리



김영춘 국회의원(전 해양수산부 장관)



행사 주요 참석자



니코스 노미코스 교수



윤희성 KMI 센터장

세미나 전경